



영화 속 기술과 기억, 그리고 인간 02

<당신과 함께한 순간들>

불완전한 기억이 머무는 자리

글. 김서울 진보적 미디어 운동 연구저널 ACT! 편집위원

연재 영화 목록

1. <애프터 양>, 코고나다, 2022
2. <당신과 함께한 순간들>, 마이클 알메레이다, 2017
3. <에이아이>, 스티븐 스피버그, 2001
4. <환송대>, 크리스 마르케, 1962

‘영화 속 기술과 기억, 그리고 인간’ 두 번째 시간이다. 첫 번째 영화로 살펴보았던 <애프터 양>을 관람하면서 문득 몇 해 전에 보았던 영화 한 편이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2017년 가을에 국내 개봉하여 별다른 주목은 받지 못했던 영화임에도 어떤 이들에게는 깊고 잔잔한 파동을 남겼던 마이클 알메레이다 감독의 <당신과 함께한 순간들>이다.

홀로그램이라는 신기술로 인간을 형상화한 인공지능이 등장하지만, 이 영화 역시도 기술의 메커니즘에 몰두하지 않는다. <애프터 양>과 <당신과 함께한 순간들>은 인공지능이 등장하고 이를 매개로 기억과 가족을 다룬 드라마이며, 부재한 대상을 둘러싼 기억, 시간, 가족이라는 테마를 깊숙이 다룬다는 점에서 함께 놓고 볼만하다.

이미지 출처 : 네이버 영화



<당신과 함께한 순간들> 2017

감독 : 마이클 알메레이다

출연 : 로이스 스미스, 존 햄, 지나 데이비스,
팀 로빈스, 스테파니 앤두자

영화가 시작하면 어떤 배경을 무대로 삼고 있는지에 관한 일체의 설명도 없이 곧바로 한 노년의 여성과 젊은 남성의 대화가 이어진다. 여든다섯에 접어들며 치매 증세로 기억을 점점 잃어가는 마조리(로이스 스미스)와 먼 저 세상을 떠난 남편의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복원된 인공지능 월터(존 햄)다. 그리고 돌봄이 필요한 마조리의 곁에는 딸 테스(지나 데이비스)와 남편 존(팀 로빈스) 부부와 부부가 부재할 때 마조리를 케어하는 줄리(스테파니 앤두자)가 있다. 폴리처상 후보에 올랐던 조던 해리슨의 연극 <마조리 프라임>을 영화화한 본 작품의 구성은 매우 단출하며, 흐름은 시종 잔잔하다. 영화의 주된 공간적 설정은 해변가에 위치한 저택이다. 영화는 연극처럼 한정된 공간인 이곳에 거주하는 인물들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들에 집중한다. 인물들 간에 오가는 대화는 실타래처럼 얽힌 부재한 사람, 지나간 기억들을 품고 있다.

상대가 원하는 시절의 형상으로 감쪽같이 복원되었지만, 실체가 없는 홀로그램으로 표현된 인공지능은 만질 수 없다. 영화 속 인공지능은 대화로 기억을 학습해간다. 홀로그램과의 대화를 특정한 기억의 복원을 위해서는 맥락에 대한 설명까지 곁들여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는 과거의 떠올리기 싫은 기억들도 틈입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기억을 다루는 <당신과 함께한 순간들>에서 특히 흥미롭게 다가오는 지점은 흘러간 시간 속에 자리하는 무수한 기억 중에서 어떠한 기억을 소환하느냐는 것이다. 누군가는 삶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의 기억을 떠올릴 것이다. 그런데 극 중 인물들은 떠나보낸 가족을 홀로그램으로 복원할 때, 상대와 생전에 해결하지 못한 일이 있었던 시점을 선택한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서로 갈등을 빚었던 기억을 후일에 끄집어낸다는 것은 아픔을 들추어내는 과정이기도 하다. 하나의 기억을 되살리는 과정은 또 다른 고통을 자아낸다. 때로는 고통과 대면하는 것을 피하고 우회하기 위해 기억은 봉인되기도 한다.





마조리는 자신의 명이 얼마 남지 않음을, 상태가 더 나이지 않을 거라는 점을 자조하며 이를 월터 프라임에게 털어놓는다. 그리고는 테스-존 부부 앞에서 50년 동안 금기어나 다름없던 죽은 아들 데미안의 이름을 거론한다. 예컨대 50여 년 동안 묵혀져 있던 마조리-월터 부부의 아들 데미안은 봉인된 기억 속의 존재일 것이다. 이후 마조리를 의식한 존은 월터 프라임에게 이와 얽힌 사연을 설명한다. 아들 데미안이 자살한 충격을 잊기 위해 부부가 뉴욕에 갔고, 이후 50년 동안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사진을 숨겼던 마조리는 그러나, 존의 말대로 죽은 아들을 잊은 적이 없었다. 마조리가 지우고 싶었던 이와 같은 사실은, 마음 깊은 곳에 기억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기억은 각자 자의적으로 이를 취사선택하여 수정된 채로, 왜곡된 채로 전달되기도 한다. 테스와 존은 이전에 먹은 아이스크림이 바닐라인지 파스타치오인지에 대해 시시콜콜한 논전을 벌인다. 월터의 연적이었던 장 폴이 갑자기 세계랭킹 8위까지 오른 테니스선수로 둔갑하는 경우처럼, 거짓으로 조작되기도 한다.

극 중 존과 테스가 나누는 대화에는 기억의 속성을 다루는 이 영화의 핵심과도 같은 내용을 품고 있다. 기억이란 뇌안의 퇴적층과 같다는 것이다. 그리고 철학자 윌리엄 제임

스의 이론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며 이를 거론하는 대목에서는 기억이란 우물이나 서랍장 같은 것이 아니고, 무언가를 기억할 때는 기억 그 자체가 아닌 기억한 마지막 순간을 기억하는 것뿐이라고 말한다. 그러한 기억들은 다시 복사본의 복사본처럼 계속 희미해지며 절대 생생해지거나 선명해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강렬한 기억도 완전히 믿을 수 없으며 끊임없이 조금씩 유실된다는 것.

영화는 크게 인공지능 월터, 딸 테스와 사위 존의 대화로 구성되는 전반부와 테스와 인공지능 마조리, 존과 인공지능 테스가 등장하는 후반부로 나뉘는다고 볼 수 있다. 마조리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마조리는 인공지능 프라임으로 복원되어 테스와 마주한다. 이후 돌연 무슨 연유인지 알 수는 없으나 작고한 테스는 프라임으로 존 앞에 등장하고, 영화의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급격히 늙어버린 존의 모습을 비춘다. 세월이 흐르고 분기별로 세상을 떠난 각 인물의 임종은 등장하지 않는다. 영화는 이러한 시간의 문턱을 매우 느슨하고도 잔잔한 흐름 속에서 페이드 인/아웃으로 과감하게 뛰어넘는다.

그렇게 마조리도, 테스도 떠나고 나이 든 존까지 흘러보낸 영화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건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저택

존과 테스가 나누는 대화에는 기억의 속성을 다루는
이 영화의 핵심과도 같은 내용을 품고 있다. 기억이란 뇌 안의 퇴적층과
같다는 것이다. 그리고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의 이론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며 이를 거론하는 대목에서는 기억이란 우물이나 서랍장 같은
것이 아니고, 무언가를 기억할 때는 기억 그 자체가 아닌 기억한 마지막
순간을 기억하는 것뿐이라고 말한다.



의 거실에 모인 마조리, 월터, 테스 프라임들 간의 대화다. 인간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고 인간의 기억으로 존재했던 인공지능만이 남은 순간이다. 인공지능 간에 기억을 나누며 추억을 회상하는 이 대목은 섬뜩한 인상마저 자아낸다. 인간이 부재한 자리에서 인간의 기억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마지막 대화 장면은 도입부와도 대응한다. 오프닝에서 마조리와 대화하던 인공지능 월터는 두 사람이 젊은 시절 함께 모텔에서 관람했던 영화인 <내 남자친구의 결혼식> 이야기를 꺼냈었다. 마조리는 왜 하필 그 영화냐는 반응을 내보였다. 그날은 월터가 마조리에게 청혼했던 날이기도 하다. 월터 프라임이 영화가 끝나고 당시에 자신이 청혼했다고 말하자, 마조리는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 것을 이야기하며 “만약 우리가 오래된 극장에서 <카사블랑카>를 보고 집에 오는 길에 당신이 청혼했다면? 다음번에 얘기할 때는 그게 사실이 되는 거야”라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월터 프라임은 영화의 도입부에서와는 달리 마지막 장면에서는 <내 남자친구의 결혼식>을 <카사블랑카>로 바꿔 말한다. 함께 관람한 영화가 오래된 극장에서 본 <카사블랑카>였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마조리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인공지능 월터에게 각인된 기억이 마조리의 제안으로 수정된 셈이다. 상대를 고려하는 대화를 통하여 기억의 퍼즐을 맞추는 인간처럼, 서로와 대면한 인공지능들은 기억의 조각을 맞춘다. 극 중에서 인물들이 털어놓는 기억들을 학습하여 만들어지는 홀로그램의 기억은, 곧 인간이 상실, 변형, 희석, 왜곡하곤 하는 기억과도 같다. 이 영화에서 인공지능은 불완전한 인간과는 다른, 완전한 존



재가 아니다. 도리어 불완전한 기억을 갖는 인간의 속성을 닮았다.

<당신과 함께한 순간들>은 시종일관 기억이 머무는 자리란 무엇인지에 관하여 되묻는 영화다. 극 중에서 기억을 저장하는 홀로그램이라는 존재는 분명 기술 발전의 산물이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작동 방식이나 그것을 가능케 하는 혁신적 기술의 구현 같은 사안은 영화의 관심사가 아니다. <애프터 양>에서 로봇이 간직하고 있는 기억을 매개로 양이라는 로봇으로부터 파생된 관계의 상실, 사랑, 정체성에 주안점을 둔 것처럼, <당신과 함께한 순간들> 또한 홀로그램으로 복원된 인공지능을 기억을 재료로 삼아 떠난 자와 남은 자들 사이에 남은 기억의 고리를 들추는 과정에 영화의 상영시간을 할애한다. 영화 속 마조리와 월터 부부, 마조리와 테스 모녀, 존과 테스 부부는 각자의 성격과 애정의 방식은 달랐을지언정 서로를 사랑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질곡의 삶 속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오해를 샀던 문제를 끝내 풀지 못했다.

<당신과 함께한 순간들>의 그들처럼 우리는 생전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풀지 못한 숙제들을 안고 살아간다. 삶에서 마주하게 되는 상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거듭 기억하고, 회상하고, 털어놓고 또 말하게 될까. 